

#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 큰 술, 작은 술이 도대체 뭐야?

요리 조리법과 계량스푼의 관계- 맛을 내는 방법의 표준과 맛을 내기 위한 재료 측정 방법의 표준이랄까?

아내의 지방 출장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내 없는 주말 저녁을 맞게 된 표 대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볼까 생각하다가 저녁 메뉴를 정하기 위해 냉장고를 뒤진다. 토마토와 양송이가 잔뜩, 냉동실엔 오징어와 새우도 있다. 저녁 메뉴를 스파게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찾아 조리법을 출력한 표 대리가 아이들을 불러 모운다.

만 기다려봐." 라고 말했지만, 표 대리도 사실 이 '술' 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 대충 짐작으로 직감에 의존해 음식 재료와 양념을 넣으려고 했으나, 아이들도 아이이지만, 맛이 안 날까 불안해진다.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몰래 아내에게 살짝 전화를 건다.

"나야 여보, 수고가 많지요? 저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라며 아내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자, 준이랑 준혜, 이리 와 봐. 오늘은 아빠랑 함께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어보자. 준혜 너도 좋지?"

"네~ 신나요!" 귀여운 딸내미 준혜는 벌써부터 앞치마를 찾아 둘러 달란다.

준혜에게 앞치마를 반 접어 돌려주는 표 대리에게 아들 준이가 묻는다.

"아빠, 여기 보니까, 토마토소스 4 큰 술 이래요. 올리브유는 2 큰 술 이고. 음..., 바질 1/2 작은 술은 또 뭐지? 아빠, 스파게티에 원래 술이 들어갔어요? 큰 술이랑 작은 술..."

"음..., 아니야, 준아. 거기서 말 하는 술은, 아빠가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니고, 음... 있지, ..., 잠시



"스파게티? 재료야 항상 준비해 두지만,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음...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열면 거기에 동그랗게 생긴 다섯 개짜리 계량스푼 묶음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대분자로 Tbsp라고 써진 제일 큰 숟가락이 있어. 테이블스푼의 약잔대, 그게 큰 술이고, 나머지 네 개는 모두 소분자로 tsp라고 쓰여 있을 텐데, 그게 작은 술을 의미해. 거기엔 1/2, 1/4 등등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돼. 쉽지?" 라며 아내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응, 여보, 고마워. 내가 맛있게 스파게티 만들어



서 사진 찍어 보낼게. 당신은 멀리서 눈요기라도 해." 아내와 통화를 끝낸 표 대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부엌으로 돌아온다.

"자, 준아, 이걸 봐라. 이게 숟가락인데, 여기 가장 큰 걸 큰 술이라고 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을 작은 술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술은 숟가락을 말해. 왜, 어른들 보면 '밥 한술 뜨자' 라는 말씀들 하시지?"

"아~밥 한술? 그럼 술이 숟가락이구나." 준이도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 이 큰 술은 15 ml라고 되어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밀리리터네~" 아들 녀석이 아는 것이 나 왔다고 좋아한다.

"그래. 큰 술은 15 ml이고, 작은 술은 여기 쓰여 있듯이 5 ml구나. 우리 이제 이 숟가락에 맞춰서 소스를 만들어 볼까?" 표 대리가 국수 삼을 물을 올려놓으며 말을 한다. 뭔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준이가 말을 잇는다.

"근데, 아빠, 이런 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큰 술은 15ml 이고, 대문자 T를 쓰고... 이런 거 말예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어떻게 스파게티 맛이 나는 건지? 정말 신기해요."

표 대리는 아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 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을 시작한다.

"준아, 이런 게 다 약속이야.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약속. 너의 키는 152 cm 이고, 몸무게는 43 kg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ml도 배웠잖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양이나 무게, 길이 등을 재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 그럴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단위가 있어야 서로 헛갈리는 일이 없겠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무슨 재료를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어떠한 맛이 난다는 걸 찾아낸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파게티도, 이런 국수 요리를 부르는 이름 또한 전 세계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이태리 음식인데, 이런 재료를 이만큼 써서 이렇게 만들면 이걸 스파게티라고 부르자' 라고 한 것이 표준이 되고 오늘 날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사용하는 표준용어가 된 거지."

"응, 아빠, 대충 알겠어요. 그럼 피자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도 다 표준 단위로 얼마만큼의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준이가 이해하자 표 대리는 뿌듯한 듯 미소를 지으며 올리브오일을 두 큰 술 후라이팬에 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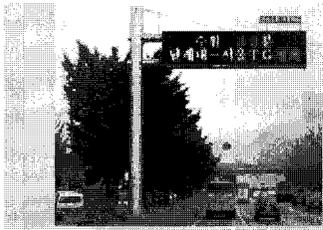
[표준 TIP]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 계량스푼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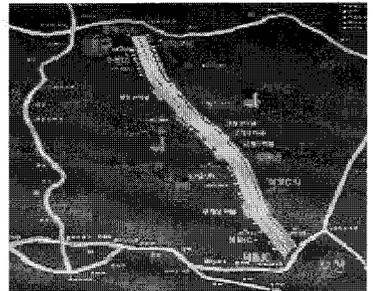
1Tbsp=15 ml, 1tsp=5 ml, 1/2tsp=2.5 ml, 1/4tsp=1 ml, 1/8tsp=0.5 ml

| 기술표준 2009.9

# U-City,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 뭐야?



'서초-판교 정체' 전광판에서 교통의 혼란을 사전에 알려준다. 고속도로를 아예 이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막힌 곳을 미리 알려 주면 원활한 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뽕! 뽕!'  
정신없이 울려대는 차량 경적 소리로 가득한 정체도로. 한 부부, 차 속에 갇힌 채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연신 시계단 확인하는 표 대리. 토요일 오후인 지금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내,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결혼식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대중교통이 더 빠르다니까, 굳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러다 결혼식 다 끝나고 도착하겠대." 표 대리가 아내에게 불멘 소리로 투정을 부린다. 뒷좌석에 아이들과 함께 탄 아내는, 짜증내듯 말하는 표 대리가 미워 한껏 쏘아 붙이려다가, 지하철로 가자는 남편을 졸라 차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 미안해져 부드럽게 대꾸한다.

"미안해 여보. 미안한데, 애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지하철에 버스로 가? 그랬으면 애들은 물론 우리도 너무 힘들지~! 또 길이 이러

게 막힐 줄도 몰랐잖아. 만약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차 가져가자고 했었어? 짜증 내지 말고 기분 좋게 가자. 올 때는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사촌들이랑 맥주라도 한 잔 해. 그래도 모처럼 우리식구 다 같이 나온 기잖아. 응? 자기야~"  
'응? 자기야~' 라는 아내의 애교 멘트에 여느 때 처럼 표 대리는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 알았어. 애들 고생하는 것 보다 낫지 뭐."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체 풀릴 거야. 여기가 이렇게 막힐 길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저기 앞에 전광판 보여? 여긴 지금 이래도, 안양까지는 소통 원활이라고 쓰여 있잖아. 이 근처 어디에 사고라도 난거 아니야?"

아내도 이대로라면 제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한 마음과 답답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요즈음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있다던데 그런 거라도 진작 달아 놓을걸... 아휴 답답해"

여전히 짜증을 내며 말하는 표 대리에게 아내도 이

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교통방송이라도 듣자며 라디오를 켜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던 중,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인해 최적의 도로상황을..." 이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아내가 손을 멈추고 스피커의 소리를 높인다.



"u시티,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도입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도로 전광판, 교통방송,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도로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 전에 최적의 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교통신호체계의 효율적인 변화와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상황은 물론 정체, 사고, 도로공사, 위험지역 안내까지 미리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유쾌하게 운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라디오에서 나온 이 새로운 정보가 당장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도 무 반가운 뉴스임에는 틀림없다.

"세상 참, 점점 정말 살기 좋아지네. 이걸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던 일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저 교통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군... 그렇게 되려면 복잡한 교통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는 소린가? 여보, 저기도로 전광판에서 도로 상황 정보가 나오게 된지도 얼마 안됐지? 저걸 보니 그럼 u시티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벌써 시작이 된 거 아니냐?"

표 대리가 가리키는 전광판을 보던 아내가 반가운 듯 소리친다.

"응, 그런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저런 교통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정착돼서, 꼭 좀 출발 전에 도로상황 확인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표준 TIP]**

**자랑스런 우리의 지능형교통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추진**

최근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표준 제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받아들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이 분야의 국제표준 채택 문제를 논의하게 될 'u시티 태스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u시티 국제 표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기술표준 2009.9

